



2015학년도 경찰대학 1차시험 (국 어)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 연필의 장점은 연필심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
- ② 동생은 5년 동안 김 교수에게서 피아노를 사사하였다.
- ③ 밤을 새고 잠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 ④ 돌이켜 회고해 보면 우리는 형극의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 ⑤ 가정은 인간성의 함양과 사회적 덕목을 계발하는 터전이다.

2. <보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홀이불 → [혼니불], 꽃잎 → [꼴닙],
 읊다 → [읍따], 헛웃음 → [허두슴]

- ① 종성의 자음이 탈락하였다.
- ② 음절 끝의 장애음이 평음으로 바뀌었다.
- ③ 비음 앞에서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다.
- ④ 뒤에 오는 말의 초성으로 'ㄴ'이 첨가되었다.
- ⑤ 받침으로 쓰인 폐쇄음 뒤에서 자음이 된소리로 바뀌었다.

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실패에 실이 잘 감기지 않았다.
 ㉡ 형은 지금 군대에서 7연대 소속이다.
 ㉢ '이원론'이란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 우리말에서는 받침의 지읒을 표기대로 발음할 수 없다.
 ㉤ 수업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음악을 무엇으로 하지?

- ① ㉠: '감기지'는 [감끼지]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② ㉡: '7연대'는 [칠련대]라고 발음해야 한다.
- ㉢: '이원론'은 [이월론]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④ ㉣: '지읒'은 [지으즐]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 ⑤ ㉤: '끝'은 [끄출]이라고 발음해야 한다.

4.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격 조사는 결합하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이다. 문장에서 격 조사의 쓰임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① '우리 형은 대학생이다.'의 '이다.'
- ②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 주신다.'의 '께서.'
- ③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에서 '이시여.'
- ④ '학교로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다.'에서 '로.'
- ⑤ '누나는 개나리하고 진달래를 좋아한다.'의 '하고.'

5.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조 용언은 띄어 쓰음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u>간</u> 다.	불이 꺼져 <u>간</u> 다.
내 힘으로 막아 <u>낸</u> 다.	내 힘으로 막아 <u>낸</u> 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 ① '밀어내 버렸다.'는 '밀어내버렸다.'로 쓸 수 없겠군.
- ② '잘난 체를 한다.'는 '잘난 체를한다.'로 쓸 수 없겠군.
- ③ '이것은 믿을 만하다.'는 '이것은 믿을만하다.'로도 쓸 수 있겠군.
- ④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는 '어머니를 도와드렸다.'로 쓸 수 없겠군.
- ⑤ '아이들이 떠들어만 댄다.'는 '아이들이 떠들어만댄다.'로 쓸 수 없겠군.

【12~13】 다음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와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③ 교육비 걱정이 사라진 나라, 양육비 걱정이 사라진 나라. 이것이 바로 부강한 나라입니다.
- ④ 육아의 고통을 개인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것, 그것만이 아름다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⑤ 저출산 사회의 깊은 늪,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고령 사회의 무거운 짐, 이제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가름이 듣자 나라에서 전국에 술 빚는 것을 금하고, 이를 어긴 자는 잡아들여 벌금을 내게 했다. 이에 명을 어긴 자를 관가에 몰래 일러바치고 포상금을 타려는 자들이 많아졌다.

(가)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의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다모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서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양반 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내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 보고 술지게미가 있거든 고향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까.”

다모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으로 들어가 집 안을 수색했다. 과연 석 되들이쫂 되는 향아리에 새로 늦가을에 담근 술이 들어 있었다.

다모가 향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에 엎어졌다.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다모는 향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 안으로 흘려 넣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다모가 질책했다.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사죄하며 말했다.

“우리 집 양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병이 더욱 고질이 됐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다가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되를 어디서 얻어 왔어. 노인의 병을 구완할 생각으로 감히 법을 어겨 술을 빚고 말았지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우리 사정을 불쌍히 보아 주시기 바랄 뿐이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겠네.”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향아리를 안고 가서 잣더미에 술을 쏟아 버렸다. 그러고는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아전은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됐느냐?”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근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소”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택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할머니가 음식도 못 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느라 겁니다.”

다모는 그렇게 말한 뒤 여기서 몰래 술 담근 걸 누가 또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쌀도 내가 쪄고 술 담그는 일도 내가 했으니, 늙은 할미 혼자 지키는 집에 알 사람이 또 누가 있겠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술을 팔진 않으셨나요?”

“나는 늙은 남편 병을 구완할 생각으로 술을 담근 것뿐일세. 향아리도 겨우 몇 사발쯤밖에 안 되는 크기인데, 남에게 팔고

◆ 제목 :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 개요

I. 서론 : 문제 제기

II.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가. 경제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III. 저출산 문제의 원인

가. 개인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IV.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가. 개인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V. 결론 : 요약 및 제언

[추가로 수집한 자료]

[A] 신문 기사 자료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자녀 양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육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00 신문 -

[B] 인터뷰 자료

“기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아 문제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 000 씨 -

[C] 보고서 자료

우리나라는 2020년 경에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경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 00 경제 연구소 -

12. 개요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I에서 [C]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저하가 고령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음은 들어 저출산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 ② II-가에서 [C]를 활용하여 출산율의 저하는 젊은 계층의 노년층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한 경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다룬다.
- ③ III-가에서 [B]를 활용하여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기혼 여성의 사례를 다룬다.
- ④ IV-가에서 [A]를 활용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 교육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언급한다.
- ⑤ IV-나에서 [B]를 활용하여 기혼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13. ‘저출산 문제’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문구를 <조건>에 맞게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다가올 폭풍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 ② 출산을 책임지는 나라, 가정을 책임지는 나라. 따뜻한 가정이 행복한 국가의 기본입니다.

나면 무슨 남은 게 있어서 우리 집 양반을 드리겠나. 하늘에서 환한 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찌 속이겠나?”

“정말 그러시다면 누군가 술맛을 본 사람이 달리 없을까요?”

“젊은 생원이 있네, 우리 시동생. 어제 아침에 성묘하러 가는데 우리 집 가난한 살림에 아침밥을 해 줄 수가 있다. 밥을 굶고 길 떠나야 될 형편이라 내가 술 한 사발을 떠다 드렸네. 그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

“젊은 생원과 이 맥 양반이 진짜 친형제가 맞으세요?”

“아무림.”

“젊은 생원은 나이가 어찌 됩니까? 얼굴은 살이 쯤나오, 말랐나요? 키는 얼마나 되고, 수염은 얼마나 났나요?”

할머니는 다모가 묻는 대로 자세히 대답해 주었다. 다모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밖으로 나와 아전에게 말했다.

“양반 댁엔 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이닥친 걸 보고는 주인 할머니가 놀라 쓰러져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내가 올리대다 할머니를 죽인 셈이다 싶어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다 나오느라 늦었네요.”

다모는 아전을 따라 한성부로 향했다. 젊은 생원 하나가 뒷짐을 지고 거리를 서성이며 아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보였다. 젊은 생원의 생김새는 할머니가 가르쳐 준 시동생의 생김새와 똑같았다. 다모는 손을 쳐들어 생원의 따귀를 때리더니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네가 양반이나? 양반이란 자가 형수가 몰래 술을 담갔다고 고자질하고는 포상금을 받아먹으려 했던 말이나?”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들 주변을 빙 둘러서서 구경을 했다. 아전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집 주인 할멈의 사주를 받아 나를 속이고 술 빚은 걸 숨겨 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어?”

(나) 아전은 다모를 붙잡아 주부 앞에 가서 다모의 죄를 고해 바쳤다. 주부가 심문하자 다모는 사실대로 모두 자백했다. 주부는 성이 난 척하며 말했다.

“술 담근 일을 숨겨 준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곤장 20대를 쳐라!”

오후 6시 무렵 관청 일이 끝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따로 불러 엽전 열 껍미를 주며 말했다.

“네가 숨겨 준 일을 내가 용서해서는 법이 서지 않기에 곤장을 치게 했다만, 너는 의인이로구나. 참 가루하다 여겨 상을 내리는 것이다.”

다모는 돈을 가지고 밤에 남산의 그 양반 댁으로 가서 주인 할머니에게 건넸다.

“제가 관청에 거짓 보고를 했으니 곤장 맞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할머니가 술을 담그지 않으셨더라면 이 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은 할머니께 돌려 드릴게요.”

[B] 제가 보니 할머니는 겨우내 춥게 지내시는 모양인데, 이 1천 전 돈으로 받은 땀나무를 사고 받은 쌀을 사시면 추위와 굶주림 없이 겨울을 나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절대 술을 담그지 마셔야 합니다.”

주인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돈을 사양했다.

“다모가 우리 사정을 봐 준 덕택에 벌금을 면하게 된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무슨 닳으로 이 돈을 받는단 말인가?”

할머니가 굳이 사양하며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자 다모는 할머니 앞에 돈을 밀어 두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 송지양, 「다모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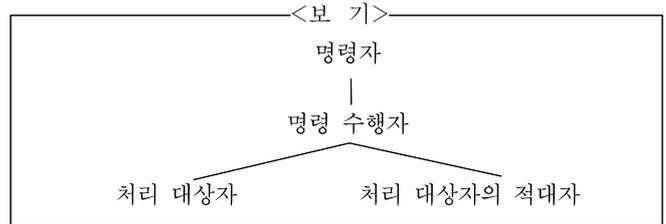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선인과 악인의 대결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인물 하나하나의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여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국면을 전환하여 각 공간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15. **[A]와 [B]에 나타난 ‘할머니’와 ‘다모’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유사한 사례를, [B]는 대비되는 사례를 들어 말하고 있다.
- ② [A]는 긍정적으로, [B]는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며 말하고 있다.
- ③ [A]는 실제 일어난 상황을, [B]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말하고 있다.
- ④ [A]는 상대방의 감정에, [B]는 상대방의 권위에 호소하며 말하고 있다.
- ⑤ [A]는 상대방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B]는 상대방의 다짐을 요구하면서 말하고 있다.

16. **(가)에 등장하는 인물의 구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명령자’는 ‘처리 대상자’의 범법 사실을 모르고 ‘명령 수행자’에게 명령했다.
- ② ‘명령 수행자’는 ‘명령자’의 명령보다는 ‘처리 대상자’의 상황을 더 고려하고 있다.
- ③ ‘명령 수행자’는 ‘처리 대상자’를 통해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했다.
- ④ ‘처리 대상자’는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가 한 적대 행위를 모르고 있다.
- ⑤ ‘처리 대상자의 적대자’가 한 적대 행위에 대해 ‘명령 수행자’와 ‘명령자’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했다.

1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주부가 다모에게 곤장을 친 일은 ()이라고 할 수 있군.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 ② 반근착절(盤根錯節)
- ③ 삼인성호(三人成虎)
- ④ 오월동주(吳越同舟)
- ⑤ 읍참마속(泣斬馬謖)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하는 인간인 호모 콘수무스(homo consumus)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의 신인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소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사 먹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사 먹는다. 이 점에서 소비는 노동과 함께 인간의 생존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 소비의 기본 원칙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장 원리 아래에서 생산자와 만난다. 그러나 이러한 일차적 의미의 ㉠합리적 소비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생산보다는 소비가 화두가 된 소비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는 단순히 필요한 재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유리한 재화를 구매하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최대 효과 자체에 정서적이고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이 개입하면서, 이제 소비는 개인이 세계와 만나는 다분히 심리적인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곧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합리적 소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가 된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소비문화는 물질적 소비 차원이 아닌 심리적 소비 형태를 띠게 된다.

가령 베블린 효과(veblen effect)는 남들보다 돋보이거나 뽐내고 싶어서 비싼 물건일수록 사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스노브 효과(snob effect),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품을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고자 하는 밴드 웨건 효과(band wagon effect), 미적 특성과 같은 감성적 가치를 구매 결정의 우선 요소로 보는 헤도니스트 효과(hedonist effect) 등이 있다.

소비 자본주의의 화두는 이제 과소비가 아니라 ㉡과시 소비로 넘어간 것이다. 과시 소비의 중심에는 신분의 논리가 있다. 신분의 논리는 유용성의 논리, 나아가 시장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 준다. 혈통으로 이어지던 폐쇄적 계층 사회는 소비 행위에 대해 계급에 근거한 제한을 부여했다. 먼 옛날 부족 사회에서 수장들만이 걸칠 수 있었던 장신구에서부터, 제아무리 권문세가의 정승이라도 아흔아홉 칸을 넘을 수 없던 집이 좋은 예이다. 인도의 한 지방에선 하층 계급의 여인들은 긴치마를 입을 수도, 머리에 꽃 장식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힘을 통해 자기의 취향을 주위 사람들과 분리시킴으로써 경외감을 강요하고, 그렇게 자기 취향을 과시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자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가시적 신분 제도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신분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개인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물질적 부를 표현함으로써 신분을 과시하려 한다. 문제는 혈통이 보장하는 신분에 비해 부에 의한 신분은 털 견고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대의 신분 과시욕이 호모 콘수무스를 만들어 냈다면,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 자체의 작동 원리가 움직이고 있다.

자본주의가 일구어 낸 산업화는 무엇보다도 생산의 극대화를 향해 돌진했다.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건전한 소비이다. 그러나 필요량을 넘어서 과잉 생산된 상품을 팔기 위해 초기 산업화는 제국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원료도 싸게 가져오고 싼 인건비로 만들어서 다시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식민지만큼 매혹적인 것

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는 필요성이나 가격과 무관한 욕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생산자나 판매자의 전략은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에 부가되어 소비자의 욕망을 만들어 내는 요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기호 가치이다. 사람들은 제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되는 것은 제품에 부여된 이미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들은 최근 노골적으로 과시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TV는 온통 소비를 누리는 안온한 부르주아지의 삶을 떠안기느라 여념이 없다.

18. 밑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하여 화제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하여 주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통시적인 관점에서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1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호모 콘수무스의 출현 이면에는 자본주의 자체의 원리가 작동한다.
- ②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부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한다.
- ③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조절한다.
- ④ 폐쇄적 계층 사회에서 소비 행위는 권력과 계급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 ⑤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은 초기 산업화로 이어져 생산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심리 요인의 개입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② ㉠에 비해 ㉡은 시장의 논리로 설명된다.
- ③ ㉠에 비해 ㉡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의 의미가 크다.
- ④ ㉡에 비해 ㉠은 생존 욕구를 중시한다.
- ⑤ ㉡에 비해 ㉠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 한다.

21. ㉢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A 씨는 이민을 떠나는 친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인수하여 만족하고 있다.
- ② B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연예인이 광고하는 운동화를 구입하고 친구에게 자랑하였다.
- ③ C 씨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휴대폰을 추가로 구입하였다.
- ④ D 씨는 사용하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되어 최첨단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를 무리해서 구입하였다.
- ⑤ E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시계가 고장 났지만 아버지와 추억을 떠올리며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겨울 바다」 -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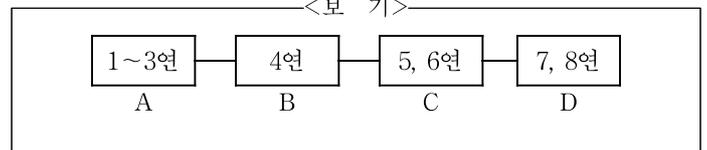
(다)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동지를 날개로 덮은 채 잔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문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지,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25.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 소재를 동원하여 삶의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 ② 자연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③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자연과 일체 된 삶을 추구하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과 현실을 대비하여 현실에 맞서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가졌던 화자의 허무한 정서는 B에서 바뀌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가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C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③ C에서 하는 '기도' 행위에 대해 화자는 A에서 그 행위를 하게 될 줄 짐작하고 있었다.
- ④ A, B, D에 '겨울 바다'라는 공간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지만, 그 의미는 모두 다르다.
- ⑤ D는 B와 C의 과정을 거쳐야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가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논리이다. 역사 연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등한 쌍방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논리와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동북공정의 논리에는 이러한 역사 연구의 기본 전제조차 배제되어 있다.

30.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이론을 비교하여 절충안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이론의 배경을 분석하여 그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을 정립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여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이론’을 바탕으로 중화와 비중화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 ② 중국의 정치적 통일과 통치 이념의 정비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 ③ 원대와 청대에 들어서 비중화를 형성했던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 ④ 조공에 대한 강제력 행사 여부가 ‘화이론’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였다.
- ⑤ 발달한 중국 문명의 소유 여부, 한족의 통치 지역인지 여부가 ‘화’와 ‘이’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32. ㉠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중화주의의 ‘화이론’을 복원시켜 과거의 화려한 역사를 부활하려는 의도이군.
- ② 중화 민족은 다수 민족의 총합이라고 설정하여 소수 민족의 소외감을 해소하려는 의도이군.
- ③ 소수 민족을 중화 민족으로 융화시켜 국민적·영토적 통합을 강화시켜 나가려는 의도이군.
- ④ 과거 한족과 비한족의 대립이 민족의 통일 의지의 산물이라고 해석한 역사의식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이군.
- ⑤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중국 민족 공동체를 설정하여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이군.

33. 글쓴이의 입장에서 ㉡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역사란 과거의 역사적 사실들이 역사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체계인데, 이러한 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주체들의 현재적 관점이 투영되어 구성된 주관적 산물인데, 현재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사는 일정한 규칙성에 따라 발생, 성장, 해체의 과정을 되풀이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발생과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 과정과 과거의 객관적 사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중시해야 하는데, 객관적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역사는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중요한데,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 내 꿈아
 [A] 만 리 遼陽(요양)을 어느덧 다녀오고
 반갑다 鶴駕(학가) 仙容(선용)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풍설 석거친 날에 못노라 北來使者(북래사자)야,
 ②小海容顏(소해용안)이 언제나 치오신고.
 故國(고국)의 못 죽는 孤臣(고신)이 눈물겨워 호노라. <제2수>

구렁에 낮은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알을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소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실람겨워 호노라. <제8수>
 - 이정환, 「비가(悲歌)」 -

(나) 늘고 병(病)든 몸을 주사(舟師)로 보니실시, 을사(乙巳) 삼하(三夏)에 진동영(鎭東營) 느러오니, 관방중지(關防重地)에 병(病)이 깊다 안자실라. 일장검(一長劍) 비기 주고 병선(兵船)에 구테 올라, ㉠여기진목(勵氣鎮目)호야 대마도(對馬島)을 구어보니, 바람 조친 황운(黃雲)은 원근(遠近)에 사혀 있고, 아득한 창파(滄波)는 긴 ㉡하늘과 흰 빗칠쇠. 선상(船上)에 배회(徘徊)하며 고금(古今)을 사역(思憶)하고, 어리미친 회포(懷抱)에 현원씨(軒輗氏)를 애드노라. 대양(大洋)이 망망(茫茫)호야 ㉢진지(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빈 아니면 풍파만리(風波萬里) 밧기, 어너 사이(四夷) 엇볼넉고. 무슴 일허려 호야 비 못기를 비롯호고. 만세천추(萬世千秋)에 ㉤업슨 큰 폐(弊) 되야, 보천지하(普天之下)에 만민원(萬民怨) 길우는다.

(중략)

시시(時時)로 멀이 드러 ㉥북진(北辰)을 바라보며, 상시노루(傷時老淚)를 천일방(天一方)의 디이는다. 오동방(吾東方)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디라마는, 국운(國運)이 불행(不幸)호야 ㉦해추홍모(海醜兇謀)애 만고수(萬古羞)을 안고 이서, 백분(百分)애 흰 가지도 못 시서 버려겨든, 이 몸이 무상(無狀)흔들 신자(臣子)이 되야 이서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문피옉고 늘기신들, 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너 각(刻)애 이즐넉고. 강개(慷慨) 계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호다마는, 도고마는 이 몸이 병중(病中)애 드러시니, 설분신원(雪憤伸冤) 어려울 듯 호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中達)을 멀리 좃고, 말 업슨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아겨든, 호물며 이 몸은 ㉧주족(手足)이 ㉨자 있고 명맥(命脈)이 이 어시니, 서절구투(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냐. ㉩비선(飛船)애 둘러드러 선봉(先鋒)을 거치면, 구시월(九十月) 상풍(霜風)애 낙엽(落葉)가치 헤치리랴. 칠종칠금(七縱七擒)을 우린들 못 홀것가. ㉪준피도이(蠡彼島夷)들아 수이 걸항(乞降) 호야스랴. 항자불살(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섬멸(殲滅)호랴. 오왕(吾王) 성덕(聖德)이 욕병생(欲竝生) 호시니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요순군민(堯舜君民) 되야 이서, 일월광화(日月光華)는 조부조(朝復朝) 호얏겨든, 전선(戰船) 트던 우리 몸도 ㉫어주(魚舟)애 창만(唱晚)호고, 추월춘풍(秋月春風)애 놓히 베고 누어 이서, 성대(聖代) 해불양파(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호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

